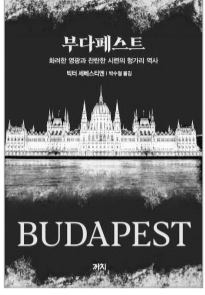


문명의 교차로에서 빛난 부다페스트 2천년 역사

부다페스트

빅터 세베스티엔 지음, 박수철 옮김



“역사 내내 우리 헝가리인들은, 대개의 경우 홀로 동양과 서양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았고, 그 결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침략자들이 초래한 위기와 파괴 행위로부터 서양의 기독교 문명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의 연설 속에 헝가리와 부다페스트의 역사와 정체성이 녹아있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이다. 그러나 도시의 역사는 국가로서의 헝가리보다 더 오래 됐다.

2000여 년 전부터 다뉴브 강(헝가리어로는 두나강)을 끼고 형성된 두 도시, 부다(Buda)와 페스트(pest)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지리적 관문이자 전략적 위치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겪어야 했다. 로마군-마자르 부족-몽골 군-오스만 군-헝가리 왕가-나치군-소련군 등 침략자들이 차례로 부다페스트를 수습-수색-수탈한 동안 점령하고 통치했다. 이러한 수난의 역사 속에서 부다는 13차례 포위되고 5차례 완전히 파괴됐다고 한다.

신간 '부다페스트-화려한 영광과 찬란한 시련의 헝가리 역사'는 기자인 빅터 세베스티엔이 20대 초반이던 1970년대 중반부터 수십 년 동안 150차례 도시를 방문해 발로 쓴 '부다페스트 연대기(年代記)'이다. '냉전과 현대 헝가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받는 '1956년 혁명' 때 갓난아기였던 저자는 부모와 함께 난민 신분으로 헝가리를 탈출했다.

저자는 1부 마자르인, 2부 헝가리 왕가, 3부 세계대전으로 나눠 부다페스트와 헝가리의 영광과 시련의 역사를 풀어낸다. 1세기 초반 다뉴브 분지에 군영을



헝가리 '1956년 혁명' 때 부다페스트 시민들에 의해 파괴된 스탈린 동상. <위키미디어 커먼즈 제공>

세운 로마군은 이곳을 '아퀼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167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곳에 머물며 '명상록' 일부를 썼다.

저자가 들려주는 부다페스트와 헝가리의 영광과 시련은 생경하다. 9세기 카자흐스탄 동부 대초원지대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다뉴브 강 유역에 자리를 잡은 마자르 족은 아르파드 왕조를 이루고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로마와 비잔티움 사이에서'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고 서양의 문화적 방식을 받아들이며 300여 년 동안 지속한다. 1241년 몽골군의 침공은 '은둔 폐허와 시체와 황무지'만 남길 정도로 참혹했다.

특히 책을 읽는 동안 1560년대부터 커피를 접한 부다페스트의 카페 문화가 눈에 띈다. 150년 동안 헝가리를 지배한 튀르크 인들은 장미와 커피, 목욕탕, 파프리카

와 같은 문화 흔적을 남겼다. 1848년 헝가리 혁명은 카페에서 시작됐고, 시인 켈체이 페렌츠는 카페에서 헝가리 국가 가사를 지었다. 저자 역시 카페에서 글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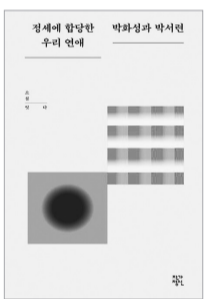
2000여 년 이어지는 유장한 부다페스트와 헝가리의 역사는 세계사와 톨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2차 세계 대전기의 유대인 학살과 1956년 헝가리 혁명, 1989년 '철의 장막' 종식과 독일통일 등 격동의 역사가 헝가리 땅을 무대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592쪽 분량의 신간은 독자들에게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헝가리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창(窓)을 열어젖힌다. 문득 다뉴브 강을 낀 부다페스트 카페에 앉아 커피와 함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값:3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근대-현대 여성 작가, 백년의 시간을 뛰어 넘다

정세에 합당한 우리 연애

박화성·박서련 지음



'소설, 잇다' 시리즈는 근대 여성 작가와 현대 여성 작가의 소설을 함께 읽는 기획이다. 가부장제와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도 자신만의 삶과 문학을 만들어 간 근대 여성작가의 작품에 제 위치를 찾아주고, 더불어 그들의 궤적을 이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일구어 가고 있는 현대 여성 작가의 작품을 통해 백년의 시간을 뛰어 넘는 문학의 힘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백선에 최진영('우리는 천천히 오래오래'), 김말봉·박솔피('기도를 위하여') 등이 짝을 이룬 책이 발간됐다.

여섯번째 시리즈의 주인공은 박화성과 작가 박서련이다. 1932년 동아일보에 '백화'를 연재하며 한국 문학 사상 최초로 장편소설을 쓴 박화성은 노동자와 민중,

여성들이 억압받는 현실을 묘사한 작품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가다. 박서련은 일제 시대 고공 농성 노동자를 등장시킨 '체공녀 강주홍'을 비롯해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선보여왔다.

박화성의 작품으로는 일제시대 실업구제 명목으로 진행된 공사의 동맹 파업을 소재로 한 '하수도 공사'가 실렸다. 임금착취에 맞서 파업을 이끄는 노동조합 지도자 서동권과 노동자들, 일본인 관리의 대결이 사실적으로 펼쳐지며 더불어 동권과 용희의 사랑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졌다.

책 제목 '정세에 합당한 우리 연애'는 박서련이 '하수도 공사'를 변주한 작품이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현재 우리 정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억제하는 때가 많다"라고 용희에게 고백하는 동권의 대사에서 차용했다.

박서련 소설 속 배경은 대학교 독서동아리다. 인문학 독서동아리 회장인 진은 총여학생회 재건이라는 포부를 안고 먼저 총학생회장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계획

을 갖고 있다. 같은 동아리 회원이자 진의 레즈비언 애인인 림도 그를 돕지만 선거 당선을 위해 둘의 관계를 비밀에 부쳐야하지 않겠냐는 진의 이야기에 완벽히 동의할 수는 없다.

림의 제안으로 독서 토론 시간에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를 함께 읽게 된 회원들. 열띤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림은 용희의 마음을 받아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세에 합당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정세에 합하지 않은 연애 같은 건 세상에 없어요. 아마도 용희는 동권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책에는 35년만의 대홍수로 목숨을 잃은 딸을 통해 빈부격차에 비례하는 자연재해의 피해와 농민의 참상을 드러낸 박화성의 단편 '홍수전후', '호박'이 함께 실렸으며 천선란은 자전적 에세이 '총화'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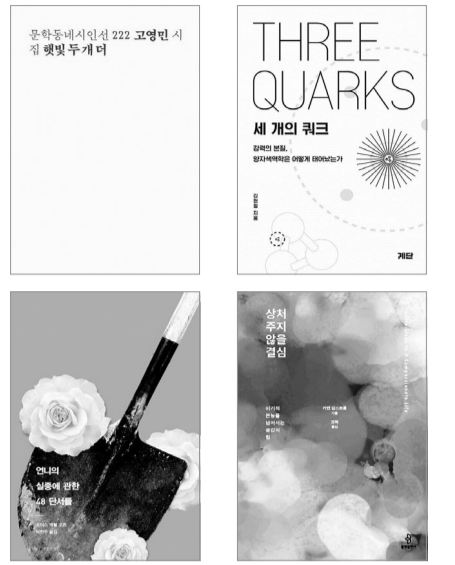
한편 조만간 '소설, 잇다' 시리즈를 통해 강경애와 한유주, 나혜석과 백수린의 책이 출간될 예정이다.

<작가정산: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햇빛 두 개 더=비밀상의 대상을 곡진한 시적 안목으로 포착한다. 비극을 산뜻한 햇빛 같은 감각으로 바라보면서 부재하는 것들의 엘레지를 신선한 감각으로 소화한다.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세상에 존재로 협현할 때 느껴지는 비애, 고통을 동력으로 시인은 '값은 눈', '춤 끝' 등 작품을 써냈다. 일상에서 시의 목소리를 발견한 작품 '더덕', '생수', 쿤데라를 연상시키는 '잠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이 수록됐다. <문학동네·1만2000원>



▲세 개의 쿼크=낯선 입자 '쿼크'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국한됐던 과학적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전자처럼 쿼크도 서로 떼어낼 수 있을까, 두 개 이상의 쿼크를 인접시키면 서로 밀어낼까. 게이저 이론이 지배적이던 시기, 수학적 존재에 가깝던 쿼크가 어떻게 인류에게 해석 가능한 존재로 '입증'됐는지 들여다본다. 더 큰 가속기를 갖추거나 새로운 검출기를 만들면서 물질의 근본 입자로 인정받게 된 일화 등을 소개한다. <계단·2만6000원>

▲언니의 실종에 관한 48 단서들=인간이 지니고 있는 악의와 폭력성에 대해 탐구한다. 논쟁적 작품들을 집필해 온 작가는 소설에서 '언니'를 향한 동경과 열등감을 함께 지닌 일그러진 인물상을 제시한다. 뉴욕주 북부 시골마을에서 여성 조각가 M.플러가 사라진다. 그녀는 여동생 조진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발견되지

않았다. 동생은 단서들을 모아가며 사라진 언니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며 비밀을 마주한다. <위즈덤하우스·1만8000원>

▲상처 주지 않을 결심=자비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하며 모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 내면의 증오와 의심, 잔인한 본능을 다스리는 방법을 종교학자 암스트롱이 열두 단계로 제시한다. 우선 한발 물러나 세상을 관망하고 나를 사랑하며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과정을 통해 나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만의 마음 사용법을 익히거나 스스로의 무지를 마주하면서 고통을 넘어설 수 있음을 말한다. <불광출판사·2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처음 만나는 옥토스튜디오=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쉽게 시작하는 어린이 코딩 교육서적. 코딩언어인 '스크래치'를 개발한 MIT가 새로 출시한 블록코딩 애플리케이션 옥토스튜디오를 예제, 프로젝트와 함께 소개한다. 기초 코딩기술 개념을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설치방법, 샘플 예제를 수록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창의성 증진을 위한 10가지 조인도 제시한다. <창비교육·1만5000원>

을 마주하면서 위험에 처한다. 유일한 친구였던 피아노 소리마저 사라지자 수피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신비한 숲으로 모험을 떠난다. <파란자전거·1만1900원>

▲수피야, 숲 소리를 부탁해=청각 장애가 있는 소녀 수피야에게 집 밖은 위험한 공간이다. 어느 날 그녀는 소리를 먹는 부영도개비, 거북이 등 수상한 숲속 친구들

▲유령 스펀=인공지능 로봇인 '스펀'이 다방면에서 활용되며 생활 편의성이 극대화된 근미래, 대부분 인간 노동은 스펀이 대신할 위험에 처한다. 실제로 일자리를 뺏긴 일부 인간들은 시위에 나선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아이들은 도시 외곽으로 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부에 거주지를 조성한다. 빈 건물들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아이들의 학교마저 위험에 처한다. <우리교육·1만4000원>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